

# 편히 쉴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모두의 집'

동명동 근대 가옥 '공공미술 시티즌랩--별별별서'  
9월 집 개방 앞두고 5월28일까지 '프리뷰 전시'  
38명 작가 참여 예술의 거리 미로센터



김설아 작가의 '병풍'



오는 9월 문을 여는 동명동 근대가옥에서 만날 예술 작품들을 미리 감상하고 쉴 수 있는 미로센터 전시회.



김신정·박유진·이치현·최윤영 작가의 작품

문하는 이들 속에서 함께 숨쉬고 쓰여진 바를 배웠다. 6개의 테마(별별정원·지역·마루·다실·부엌·소통)로 구성된 공간은 설치, 공예, 애니메이션, 아카이브 등 다양한 장르로 꾸며졌다.

전시실 입구 계단에는 '명품 돌기방'으로 잘 알려진 양문기 작가가 기존 정원석 등을 활용해 만든 한옥 디

딤들이 놓여있다. 전시실로 들어서면 오디오 세트와 신민식 작가가 가옥에서 나온 목재재와 소파 등을 활용해 만든 멋들어진 삼단 오디오랙이 눈에 띈다. 오디오는 집주인이 실제로 음악을 들었다는 다락방에 놓이게 된다. 또 김기리 작가의 상들리에 등 조명 작품은 공간의 분위기를 확 바꿔 놓고 집주인 박옥수씨 등과의 대화를 기록한 작은 책자는 공간의 기록이자 역사가 됐다.

신양호 작가는 가옥에서 발견한 자연적 모티브를 디지털 드로잉 방식으로 아이코닉하게 오픈 소스로 제공했다. 오픈 소스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 속에 스며들어 있고, 지역 청소년들이 제작한 동네 주민의 집 문패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목적실로 사용될 '별별마루'에 놓일 박병철 작가의 나무 수납장과 함께 어우러진 서신정·김영관 작가의 채상 장식이 눈길을 끈다. 또 김설아 작가가 세밀하게 그린 현대적 병풍, 공유 부엌 '별별부엌'에 들어갈 도자기 스톱, 이치현 작가가 개발한 광주의 차, 의류 등도 전시중이다.

전시장 2층에는 '별별다실' 공간이 재현돼 있다. 신성창 작가의 쪽염색 패브릭과 자작나무 조명, 박유진 작가의 대바구니 트레이, 나주 소반을 재해석한 최윤영 작가의 티 테이블, 이치현 작가의 다기 등은 모두 직접 썬 썬 있는 것들이다.

정유진 디렉터는 "여러 작가님들과 고민하고 협업하면서 예술성과 실용성이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채로운 작업을 진행했다"며 "공간에 스토리텔링이 자리잡아 편히 쉴 수 있는 집, 이야기가 있는 모두의 집이 됐다"고 말했다.

전시장을 둘러보다 보면 각각의 '작품'이 다양한 이야기를 품은 '집'의 어디에, 어떻게 자리할 지 궁금해진다. 또 열린 이 집에 둘러 직접 물건을 사용하고, 집의 스토리에 나의 이야기도 보태고 싶어진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로 보는 팬데믹과 인공지능' 강의에서 언급된 영화 'Her'

## 광주시립미술관 '슬기로운 예술수업'

28일 강우성 교수 '영화로 보는 팬데믹과 인공지능' 강의

광주시립미술관(관장 : 전승보)이 코로나19로 미술관에 직접 찾아와 강의를 듣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강좌 With 코로나 온라인 강좌 '슬기로운 예술수업'을 개설했다.

강좌는 각 분야 석학들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달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주 수요일) 광주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첫번째 강의에서는 강우성 교수(서울대 영문학과 교수)가 '영화로 보는 팬데믹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강 교수는 '엑스 마키나', '블레이드 러너', 'Her' 등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영화를 통해 인공지능과 인간의 환상, 사랑, 젠더 문제를 다루고 팬데믹, 인공지능의 위험, 자연생태계 파괴에 의한 인류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



구지훈 교수

간이 아닌 존재를 존중하는 공존의 사고가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강좌는 매월 '철학자가 본 재미있는 미술'(박규용·전남대 철학과 교수), '주택 명작에 담긴

강동·사유의공간과 장소'(오세규·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호남의 원림과 정자'(천득연한국학호남진흥원장), '도시와 공공미술'(홍경한·미술평론가), '오페라로 보는 미술사'(구지훈·창원대 교수), '전라도 음식, 그 맛과 품미'(황봉년·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주제로 계속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한국가마터 발굴현황 조사 분청사기' 발간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박물관)은 국내 도자기 가마터를 정리한 '한국가마터 발굴현황 조사 ② 분청사기(上)'를 발간했다.

이번 한국가마터 발굴 조사 보고서는 박물관이 지난 2018년부터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 거점을 목표로 진행해온 다양한 특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1950년 이후부터 조사된 국내 도자기 가마터의 발굴 성과를 대상으로 하며 2019년 첫 보고서로 '한국가마터 발굴현황 조사 ① 고려청자'를 출간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전라남·북도 지역 외에도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남·북도에서 조사된 분청사기 유적 가운데 발굴된 가마터 30곳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1963년 최초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광주 효충동 분청사기 가마터를 비롯해 근래 진행되고 있는 고흥 온대리 분청사기 가마터까지 발굴 성과를 다뤘다.

또한 개별 가마터 조사 개요와 발굴 경위, 내용 뿐 아니라 용어를 통일했다. 현재까지 도자사 연구성과 및 가마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 논고도 수록돼 있어 자료 가치도 크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54년 지어진 박옥수씨의 근대가옥이 '별별별서'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

CES INNOVATION AWARDS 2016

BIG INNOVATION CHAIRMAN'S CHOICE 2017

대한민국 소비자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1년 연속] 수상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역박람회 [혁신기술상] 수상

미국 빅 인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